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典籍)의 내용과 가치

채윤미*

- I. 서론
- II.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 개관
- III. 주요 자료의 내용과 특징
- IV.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의 의의: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전적 19종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논의한 것이다. 한글 전적 19종은 화성 지역에 세거한 양반가에서 기증된 것으로, 본고는 19종의 형태사항과 내용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간행본이 3종, 필사본이 16종인 점, 문학 작품이 5종인데 비해 14종은 대개 교육적 또는 실용적 성격을 띤 자료임을 밝혔다. 14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대 이념과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로, 7종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7종 중 3종은 진언(眞言) 또는 점복(占卜)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진언류 전적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용서로 파악했다. 이로 미루어 화성 지역 양반가는 당대 윤리와 이념 교육적 성격이 강한 한글 전적을 주로 향유하였으며 그런 가운데 진언류 전적도 중시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글 전적 19종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3종의 자료를 장을 달리하여 검토하였다. 『列女傳』은 여성 필사자의 존재를 고증하고 필사본 규범서를 연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왕대비전 언교』는 관련 계통 자료들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다른 가치를 지닌다. 『精所』는 순 한글로 이루어진 필사

* 서울대학교

본 진언집으로, 조선 후기 진언의 대중화 양상은 물론 한글 소설에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진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핵심어 : 한글 전적, 『列女傳』, 『대왕대비전 언교』, 『精所』

1. 서론

본 논문은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전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자료적 가치를 밝히려는 것이다.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자료는 화성 지역에 세거(世居)했던 양반가에서 기증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 근대에 나타난 한글 자료는 대부분 여성에 의하여 또는 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 근대시기 여성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자료는 당시 여성의 생각과 감정, 지식과 인식의 양상을 확인하고 여성의 일상생활을 재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당시 사회에서 한문 자료가 공식적인 기록의 성격을 지녔다면 한글 자료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기록은 공식적인 기록이 표현할 수 없었던 이면의 상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문 자료와 더불어 한글 자료를 통해 전 근대시기를 한층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자료는 화성이라는 특정 지역에 세거한 양반 가문에서 향유된 것이라는 구체성을 지닌다. 화성은 근기(近畿) 지방으로서 서울의 문화적 동향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는 엄연히 다르다. 다시 말해 화성은 서울과 지방의 접미지 대로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자료를 통해 화성 지역 문화의 한 특징을 포착할 수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자료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가치를 논의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그러한 작업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성시 향토박물관에는 현재 대략 87건의 한글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자료는 크게 고문서와 전적으로 나누어지며 고문서가 68건, 전적이 19건이다. 고문서가 주로 편지라면¹⁾ 전적은 소설, 가사,

언교(諺敎), 윤리규범서, 진언집(眞言集), 윤음(綸音) 등 성격이 다채롭다. 이러한 한글 자료들을 한 편의 논문에서 전부 다루는 것은 자칫 논의를 번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당시 화성 지역 양반가의 다채로운 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적²⁾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 개관

본고의 논의를 위해 전적 19건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³⁾

	자료명 (표제 : 권수제)	수집번호	필사자 (저자)	권책수	비고
1	언문상례	조정희-004	編著者 金東 혹은 金東縉	1책	1926년 또는 1936년(간행시기)
2	綸音(斥邪)	우계승-008		1책	1839년 10월 18일 (간행시기), 11월 (반사(頒賜)시기).

- 1) 고문서 68건 중 50건을 편지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토지 문서, 유언장, 조상의 官歷, 집안 어른들의 忌日,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품 목록, 가족의 옷 치수를 적은 문서 등이다.
- 2) 이하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에 대해서는 ‘화성시본’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3) 수집번호에 제시된 조정희, 우계승, 우철용, 정우식, 조택기는 자료 기증자이다. 기증자의 집안은 先祖로부터 화성에 세거한 양반 가문일 뿐 아니라 선조 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 학계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를 테면 우계승, 우철용은 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세거하였던 단양우씨 문중의 후손이다. 단양우씨 선조 중에는 『천일록』의 저자 우하영(禹夏永, 1741~1812)과 이황의 문하에서 류성룡과 동문수학한 성리학자로 남인의 영수였던 우성진(禹性傳, 1542~1593) 등이 있다. 정우식은 현 화성시 남양부 송산면 중송리 일대에 세거했던 초계정씨 송죽당공파 문중의 후손이다. 초계정씨 송죽당공파의 주요 인물로 정문익(鄭文翼, 1571~1639)이 있는데, 그는 인조 대에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공신에 등록되었다. 조택기는 현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세거한 풍양조씨 문중으로, 화성 지역을 세거지로 삼은 풍양 조씨는 ‘들목 조씨’로 불린다(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13면). 들목 조씨 문중의 주요 인물로는 조익(趙翼, 1579~1655), 조복양(趙復陽, 1609~1671), 조지겸(趙持謙, 1639~1685), 조만원(趙萬元, 1762~1822), 조학년(趙鶴年, 1786~1854) 등이 있다. 홍중화는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 세거하다가 천안으로 이거한 남양홍씨 정효공파와 남양군파 문중으로, 홍진도(洪振道, 1584~1649)의 후손가이다. 이상 화성 지역에 세거한 양반 가문에 대해서는 화성시 편,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15~20면; 최홍규 외, 『취석실 우하영의 삶과 학문: 다시 여는 <천일록千一

3	語錄	우재승-010		1책	
4	兎의 肝	우철용-027	著作者 兎 發行者 金容俊	1책	1916년(간행시기)
5	은간독	우철용-032			
6	화기문	정우식-172		1책	
7	무제	정우식-176		1책	『숙영낭자전』
8	무제	정우식-177	예인 □경승서(書)	1책	가사작품 모음집 『초당문답가』, 갑인년(필사시기)
9	무제	정우식-178		1책	『김희경전』
10	무제	정우식-179		1책	집안에서 실제 주고받은 편지모음집
11	무제	정우식-181		1책	『초당문답가』
12	眞傳: 계고언행록	조택기-075		1책	신미년~계유년(필사시기)
13	己巳記事: 문널공기스	조택기-076		1책	
14	표제없음: 윤시즈기록	조택기-077		1책	
15	閨範	조택기-078	필사자: 종손	2권 2책 영본(零本) (본래 3책)	정사년 계춘~중하 년간(필사시기)
16	精所	조택기-079		1책	불경 진언 언해
17	列女傳: 날너던	조택기-080	해평 후인	2권2책 영본(零本) (본래 3책)	정사년
18	남녀공합보노법	조택기-081			
19	대왕대비전언교	조택기-082		1책	

㉠ 먼저 목록에 제시된 한글 전적 19종의 형태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간행본이 3종, 필사본이 16종인 점이다. 간행본은 『언문상례』, 『綸音』, 『兎의 肝』인데 『언문상례』와 『兎의 肝』은 20세기에

錄》과 그 시대], 화성시, 2014; 오영섭, 김자운 공저, 『구국의 마지막 제언: 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이근호 외,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등 참고. 한편 조정희 집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행된 구활자본이라면, 『綸音』은 19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언문상례』는 책의 앞, 뒤 일부가 없는 낙질본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부분의 형태사항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언문상례』(이하 ‘국도본’으로 칭함)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언문상례』라는 제명을 가진 자료는 2종 있는데, 모두 완질본이고 총 80면으로 이루어져 있다.⁴⁾ 국도본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화성시본 『언문상례』의 표제는 한문으로 표기된 ‘諺文喪禮 附 祭禮祝文慰文書式’이다. 내제(권수제)는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병기한 형태인 ‘언문상례(諺文喪禮)’로 되어 있다. 본문의 서술 방식 또한 한글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자를 작게 병기하였다. 또 뒤표지가 훼손되었지만 국도본 2종의 발행사항으로 미루어 金東이 편저하여 1926년에 간행하였거나 金東縉이 편하여 1936년에 간행한 자료 중 하나로 추정된다.

『兎의 肝』은 표제가 ‘兎의 肝’과 ‘별주부가’가 병기되어 있고 표지 아래 ‘□文書館 發行’이라고 되어 있는데 ‘博文書館’일 것이다. 앞부분은 1~2면이 없고 뒷부분이 얼마간 없는 낙질본이며 94면까지 남아있다. 94면에서 작품 내용은 완결되므로, 발행사항을 표시한 면이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는 서지 정보를 알 수 없다.

박문서관의 『兎의 肝』 발행은 1916년에 처음 이루어졌다.⁵⁾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박문서관 발행으로 보이는 『兎의 肝(별주부가)』(이하 ‘국도본’으로 칭함)이 2종 있는데, 1종은 1925년 발행이고 다른 한 종은 1917년 발행이다. 1917년 발행본은 뒷부분이 얼마간 사라진 낙질본인데⁶⁾ 표지 그림이 화성시본 『兎의 肝』과 같다. 그러나 두 자료가 같은 판본은 아니고 국도본 1917년 발행본에 비해 화성시본이 더 분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테면 국도본 2면에 나오는 “삼희디왕과 강한지신, 천택지군이 일제이회집이어늘 광리왕이 디희햏야”라는 대목이 화성시본에는 3면에 나온다. 이것

4) 국도본 『언문상례』 2종 서지사항: 1. 청구기호: 한古朝29-145, 저자: 金東縉 編, 발행처: 惠興書林, 발행연도: 1936. 2. 청구기호: 古5213-108-219, 저자: 金東 編著, 발행처: 德興書林, 발행연도: 1926.

5) 하동호, 『博文書館의 出版書誌攷』, 『出版學研究』, 한국출판학회, 1971, 38면.

6) 국도본에는 『兎의 肝(별주부가)』이 2종 소장되어 있는데, 1. 토의 간, 발행연도: 大正14(1925), 청구기호: 3634-2-20(3)와 2. 별주부가, 발행연도: 미상, 청구기호: 3634-2-20(3)이 있다. 국도본의 온라인 정보에 발행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2. 별주부는 표지에 ‘大正 六年’이라 되어 있어 1917년 발행임을 알 수 있다.

은 내용의 변개 때문이라기보다 한 면에 담긴 글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화성시본은 매면 11항 35자, 국도본은 13항 35자로 이루어져 있어 화성시본은 국도본에 비해 한 면에 적은 글자 수를 담은 만큼 지면 할애가 많아져 분량이 늘어난 것이다. 구활자본으로 간행된 고전소설 작품들은 대부분 50~100면 정도를 보이며, 동일 작품을 놓고 보면 후대에 간행된 것일수록 분량이 줄어주는 경향을 보인다.⁷⁾ 이러한 구활자본의 경향에 따르면 화성시본은 국도본 1917년 발행본보다 이른 시기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성시본 『토의 간』은 1916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綸音』은 표지 다음 면에 손으로 쓴 문구가 있다. ‘道光十九年十一月日內賜 敬陵令禹尙俊斥邪綸音一件 命除謝恩 待教臣南’과 그 아래 어떤 모양이 그것이다. 이 문구는 형식상 내사기(內賜記)이며 이로 인해 이 책은 내사본(內賜本) 혹은 반사본(頒賜本)임을 알 수 있다. 내사본은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승정원이나 규장각 관리가 특정 관리나 부서에 내려준 책이다. 내사본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내사기를 쓰는데, 첫째 줄에 내사 연월일을 쓰고 둘째 줄에는 첫 줄에 쓴 글자보다 한 자 올려 ‘內賜’라고 쓴 다음 내사를 받는 이의 직함, 성명, 서명(書名) ‘一件’ 순으로 쓴다. 그 다음에 ‘命除謝’와 ‘恩’을 각각 줄을 달리하여 쓰고, 끝줄 아래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려주는 관리의 직함과 ‘臣’에 이어 성(姓)을 쓰고 수결(手決)한다. ‘명제사은’은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다.

이러한 내사기 형식에 따라 『綸音』에 적힌 문구를 해석해보자.道光 19년은 1839년(헌종 5)이다. 따라서 문구는 1839년 11월 경릉령이라는 관직에 있는 우상준에게 내사된 ‘척사윤음’ 한 건이라는 뜻이다. 임금의 명을 받아 척사윤음을 우상준에게 내려준 이는 대교라는 직함에 있는 남씨이고 그 아래 적힌 어떤 모양은 그의 수결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자료는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道光十九年十月十八日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1839년 10월 18일에 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자료는 10월에 간행되고 11월에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화성시본 『綸音』은 1839년 헌종이 천주교의 폐해를 막는 내용을 담아 백성들에게 내리기 위해 간행된 것이다.

이상 간행본을 대상으로 내용 소개에 앞서 형태적인 모습만 살펴보았다.

7)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7, 88면.

『언문상례』와 『兎의 肝』은 국도본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발행시기가 드러났고, 『繪音』은 1839년 11월에 입수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화성 지역 양반가에는 19세기 전반기의 간행본과 20세기 전반기의 구활자본이 전승되고 있어 간본(刊本)이 향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전적 19종 중 간행본은 3종에 그치고 16종이 필사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화성 지역 양반가에서 책 문화는 필사본으로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성시본 한글 전적 19종 가운데 문학 작품이 5종이라면 나머지 14종은 실용서로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이 일차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목적을 지닌다면, 문학 5종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일차적으로 교육적 또는 실용적 성격을 띠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문학 작품으로는 소설이 3종, 가사작품 모음집이 2종이다.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되는 『兎의 肝』,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김희경전』, 애정소설로 분류되는 『숙영낭자전』이다. 『김희경전』과 『숙영낭자전』은 앞표지와 전반부 일부, 뒷표지가 없는 낙질본이라 전술한 전적 목록에서 무제로 표시되었지만 필사된 내용을 통해 제목을 추정할 수 있다.

가사모음집 역시 모두 앞표지와 뒷표지가 없어 무제로 되어 있으나, 수록된 가사 작품으로 보건대 『초당문답가』의 이본이다. 『초당문답가』는 유교 윤리와 같은 교훈적 주제를 담은 가사 작품 십 수편으로 구성된 작자 미상의 가사집을 가리킨다. 대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대중적으로 향유되었으며 22종의 이본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⁸⁾ 『초당문답가』에는 백발편(白髮篇), 지기편(志氣篇), 역대편(歷代篇), 오륜편(五倫篇), 사군편(事君篇), 부부편(夫婦篇), 부인편(婦人篇), 종족편(宗族篇), 장유편(長幼篇), 총론편(總論篇), 개몽편(開蒙篇), 우부편(愚夫篇), 용부편(慵婦篇), 경신편(敬身篇), 치산편(治産篇), 낙지편(樂志篇) 등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⁹⁾ 이본에 따라 수록된 작품의 종류나 순서가 다르다. 전적 목록에서 무제로 표시된 자료 정우식-177은 오륜가, 경세가, 지기편, 백발편 등으로 구성되며, 정우식

8) 이황진, 『『초당문답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國文學論集』 제16집,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267면.

9) 이황진, 『초당문답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7면.

-181은 역대편, 부자편, 군신편, 부부편, 장유편, 우부편, 용부편, 여자교육편, 경신편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적 가치가 주목되는 것은 자료 정우식-181이다. 수록된 가사 ‘역대편’과 ‘여자교육편’으로 인해 이 자료는 『초당문답가』 이본 중 하나인 『편편기담경세가(片片奇談警世歌)』 계열로 판단된다. 『편편기담경세가』는 『초당문답가』 이본 중 남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계열로, 수록된 가사 작품이 일본에 대한 비판, 여성의 교육, 문명과 독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명과 독립을 강조하는 경향은 ‘역대편’을 통해 드러난다. ‘역대편’은 『초당문답가』 이본에 두루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편편기담경세가』와 다른 이본 간 차이가 있다. 보통 ‘역대편’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도 언제나 성주를 모시고서/중원을 회복하고 입신양명 하여볼까”라는 구절로 마무리 된다면, 『편편기담경세가』에는 “동양에 덩치되고 세계에 병가하니/덕의순숙 우리 신민 문명독립 향여보세”라고 되어 있다. 또 『편편기담경세가』는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논의된다.¹⁰⁾ ‘여자교육편’이 『초당문답가』 이본 가운데 『편편기담경세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료 정우식-181은 두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문학 작품 5종에 대해 개관해보았다. 전적 19종 중 문학 작품은 5종에 그치고 14종이 실용서의 성격을 띠는 점으로 미루어 화성 지역 양반가에서 문학 작품의 향유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근대사회에서 소설이나 가사 등의 한글 문학은 주로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다. 전술했듯이 화성 지역 양반가에도 필사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필사본 자료가 2종에 그친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을 달리 표현하면 화성 지역 양반가에서는 소설보다 실용서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실용서로 볼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당대 이념 및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 주문(呪文)·축문(祝文)·진언(眞言)의 내용을 담은 자료, 기타 자료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당대 이념 및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는 6종으로 『언문상례』,

10) 신상환, 『근대계몽기 여성의 호명과 교육』, 그리고 『片片奇談警世歌』: <여자교육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71집, 민족어문학회, 2014, 42면.

『綸音』, 『眞傳』, 『閨範』, 『列女傳』, 『대왕대비전 언교』이다. 주문·축문·진언의 내용을 담은 자료는 3종으로 『남녀궁합보는법』, 『精所』, 『화기문』이 그것이다. 기타 자료는 『은간독』, 『무제』(언간 모음집), 『語錄』, 『윤시즈기록』, 『己巳記事』를 들 수 있다. 『윤시즈기록』과 『己巳記事』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¹¹⁾, 여기서는 그 외의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列女傳』, 『대왕대비전 언교』, 『精所』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③-1 화성시본 한글 전적은 당대 이념과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문상례』는 상례, 장례, 제례의 예식 절차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제례 때 활용할 수 있는 축문, 위문의 서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문상례』 서문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상·장·제례가 매우 중요하여 성인이 그 예식과 절차를 정하고 기록해 놓았다. 세 가지 예식과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사농공상 사민이 모두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기록된 것은 선비를 위한 것이므로, 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자, 아이, 하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문상례』는 여성, 아이, 하층민이 유교의 예법을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綸音』은 표제에 『綸音』과 함께 『斥邪』라고 적혀 있다. 윤음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통치이념을 알리고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와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뜻한다. 이 자료에서 적사는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함에 따라 천주교를 배격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척사윤음』은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문서를 가리키며 조선 정부는 천주교 박해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윤음을 반포하였다. 화성시본 『綸音(斥邪)』은 그 가운데 현종대에 반포된 것으로 이 시기가 1839년이 기해년이므로, 현종대의 척사윤음은 ‘기해윤음’이라고도 한다. 이 척사윤음은 당시 검교제학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지은 것으로

11) 『윤씨자기록』은 조혜진, 『해평윤씨 부인의 『윤시즈기록』 연구』, 『국문학연구』 제32집, 국문학회, 2015; 『문널공귀』는 『박태보전』(서신해 저, 문학동네, 2012)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현대어역과 해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알려져 있다. 조인영, 조만영(趙萬永), 조병현(趙秉鉉) 등 조씨 일파가 주도하여 천주교도를 탄압하였는데, 이 율음의 내용은 백성들에게 천주교 탄압의 정당성을 밝히고 유교의 가르침을 권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교적 입장에서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고 그 부정적 속성을 깨닫고 다시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교적 지배질서와 정통성을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¹²⁾

화성시본 『綸音(斥邪)』의 본문은 한문본과 이를 언해한 한글본으로 구성된다. 한문본부터 나오는데, 제목이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으로 되어 있다. 한문본 본문이 끝난 다음 이어서 한글본 본문이 나오며 그 제목은 ‘유중외대쇼민인등척사륜음’이다. 한문본과 한글본을 함께 묶은 구성은 양반 남성은 물론 여성을 위시한 일반 백성을 염두에 둔 것임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당시 천주교가 성별과 신분을 막론하고 전 계층에 두루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화성시본은 네 차례에 걸쳐 반포된 『척사윤음』 가운데 19세기 전반의 시대적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동시에 이 자료가 화성 지역에서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므로, 19세기 전반기 『척사윤음』의 유통 범위를 재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眞傳』은 표지에 한자로 ‘眞傳 單’이라고 되어 있으나, 권수제는 ‘게고언형 녹’이라 되어 있으며 본문은 순 한글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표시 다음에 필사되어 있는데, ○표시로 각 조목이 구분된다. 이 자료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가지 필체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어, 두 사람 이상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자식의 양육과 훈육에 관한 부모 또는 어머니의 규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규범,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규범, 형제간의 규범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전근대 시기 가족 관계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역할 규범을 담은 윤리서로 볼 수 있다.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이야기는 대부분 『소학』에서 발췌된 것이다.

『閨範』 역시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을 비롯하여 남편의 규범, 형제간의 규범 등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윤리 규범을 담은 구절이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12)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천, 『척사윤음』 연구, 『宗敎學研究』 제18집,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9; 배요한, 『정하상의 『상제상서』에 관한 연구: 현종대 『척사윤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4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4; 김선우, 『조선후기 『척사윤음』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논문, 2018 등을 참고하였다.

다. 그러한 내용은 『논어』, 『맹자』, 『시경』, 『중용』, 『내훈』 등에서 발췌된 것이지만 『소학』이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眞傳』과 『閨範』은 한글 필사본 윤리 규범서이다. 이로 미루어 두 자료는 당시 화성 지역 양반 여성들이 윤리 규범을 필사의 방식을 통해 배웠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윤리 교육과 글씨 연습을 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자료는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규범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소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학』은 전근대시기 조선에서 아동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신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두 자료는 여성을 위한 규범서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③-2 윤리 규범서가 6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유의하면 주문·축문·진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3종인 것은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남녀궁합보는법』은 표제가 ‘남녀궁합보는법’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는 육십갑자병납음(六十甲子竝納音)에 관한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내용은 육십갑자와 그에 해당하는 납음을 병기한 부분과 그 뜻을 풀이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육십갑자는 천간(天干) 10가지에, 지지(地支) 12가지를 순서대로 배합하여 예순 가지로 늘어놓은 것이다. 납음은 궁·상·각·치·우의 오음을 육십갑자에 맞추어 오행으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육십갑자병납음은 육십갑자의 두 간지마다 해당되는 납음을 병기한 일종의 표이다. ‘갑즈’와 ‘을축’ 사이에 두 간지에 해당하는 납음인 ‘희중금(海中金)’을 병기하고, ‘병인’과 ‘정묘’ 사이에 두 간지에 해당하는 납음인 ‘노중화(爐中火)’를, ‘무진’과 ‘기사’ 사이에 해당 납음 ‘터림목(大林木)’을, ‘경오’와 ‘신미’ 사이에 해당 납음 ‘노방토(路傍土)’를, ‘임신’과 ‘계유’ 사이에 해당 납음 ‘검봉금(劍鋒金)’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이 형식들이 합쳐져 하나의 표를 이룬다. 이러한 육십갑자병납음과 이에 대한 뜻을 풀이한 부분을 토대로 인간의 운명 또는 길흉화복 등을 점치는 것이다.

『화기문』은 도통장, 중장, 말장, 제식이라는 제목 아래 일종의 주문 내지 축문이 순 한글로 담겨 있고 그에 이어 각종 부적을 그린 그림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글인 ‘도통장’이라는 제목 아래 뜻을 가진 네 글자 또는 여섯 글자와 뜻이 없는 조사에 해당하는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내지 세 글자가 연결되면서 문구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천준지비’허이, ‘권 〓 정의’오, ‘천영지영’허이, ‘삼 〓 정의’오, ‘축천축지’허니, ‘정도니의’오”. “‘극삼명천’허니, ‘심통도통’니라. ‘확충광디’허야 ‘천삼지삼인삼’인니라”하는 식이다.

그러나 뜻을 가진 문구들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아 ‘도통장’이라는 제목 안에 담긴 내용 역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도통장’을 이루는 문구 중 마지막 부분의 문장이 “‘장성슈도슈역’으로, ‘상통천문 · 〓달지리 · 중찰인사’허고 ‘만절여천’허며 ‘도절여유’허소서”로 끝나는 것을 보면, 일종의 祝願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또 이 책에는 부적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많으며 부적 그림 옆에 漸耳符, 天祭時燒上符, 讀天上三靈祝時燒上符 등 부적의 명칭이 적혀 있고 또 그 옆에 ‘음비사나바아라, 흙아목감, 나니이아, 갈이사야, 흙흙, 밧타밧타’ 등 진언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이로 보건대 이 자료는 신적 존재에게 축원하는 글과 진언을 담은 책으로 파악된다.

③-3 기타 자료 5종 중 『은간독』과 『무제』(정우식-179)는 한글 편지와 관련된다. 『은간독』이 한글 편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식, 이를 테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경우의 서식과 문구, 용어를 정리해놓은 것이라면 『무제』는 실제로 집안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를 그대로 필사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필사된 순서에 따라 두 개의 편지가 발신과 수신자의 관계로 짝을 이루므로 서로 내용이 연결된다. 이를 테면 ‘할아버님전 상서’ 다음에는 ‘손녀 답’으로 되어 있어 손녀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답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편지가 발신인이든 수신인이든 꼭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가 주고받은 경우도 있어 남성들 간에도 한글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록』은 표지에 한자로 ‘語錄’이라고 적었고 조금 떨어져서 한자로 ‘水滸誌 西廂記’라고 적어놓았다. 본문 내용은 한자 어휘를 적은 다음 그에 해당하는 한글 어휘를 적거나 또는 한자 어휘의 뜻을 한글로 풀이해놓았다. 衣服, 飲食, 耕織類, 工匠類, 供奉類, 文武類, 戲俗類, 身體類, 事情類, 親屬類, 雜人類, 漁獵類, 雜事類, 雜物類, 西廂記語錄, 水滸志語錄, 鳥獸類, 虫魚

類, 宮室類, 舟車類, 草木類 등 총 22개 항목에 해당하는 한자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글 풀이가 이루어진다.

항목들을 보건대 중국의 문학작품인 『수호전』과 『서상기』에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도 담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이로 미루어 이 자료는 당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을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자료적 특성으로 인해 『수호전』과 『서상기』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향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목록집에 중국 문학 작품으로 두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III. 주요 자료의 내용과 특징

본 장에서는 더욱 주목할 만한 자료로 판단되는 『列女傳』, 『대왕대비전 언교』, 『精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열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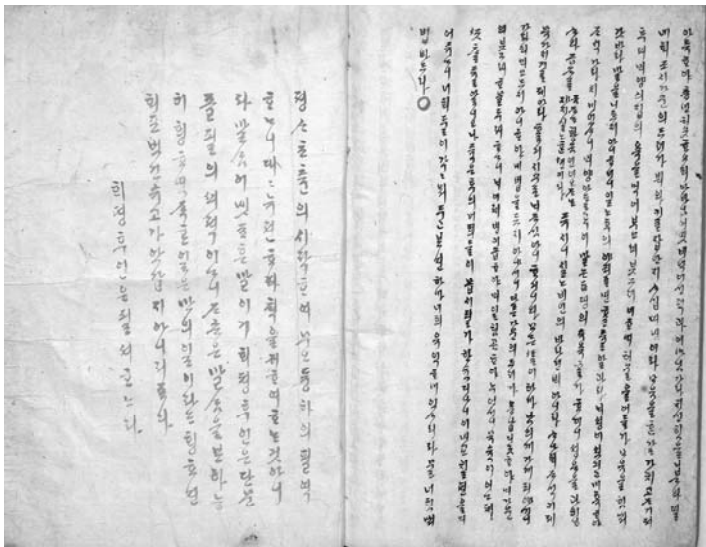
『열녀전』은 책 크기 40.5×28cm, 분량은 총 40여 장이며 매 면 13자 22행으로 필사되었다. 표제는 한자로 '列女傳'이라 되어 있고 권수제는 '널녀던'이며 본문은 순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본래 3권 3책 구성이라 판단되지만 列女傳 天과 人 2책만 남아 있다. 天권의 경우 권수제가 '널녀던'이라 되어 있으나 人권은 권수제가 '널녀던 권지삼'으로 되어 있으므로, 列女傳 地에 해당하는 '널녀던 권지이'가 있었을 것이다. 列女傳 天과 人은 모두 필사기가 있으며 본문은 검정색으로 필사되었으나 필사기는 붉은색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에도 제목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등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전술했듯이 화성시본 한글 전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대 이념 및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이다. 그 중 『열녀전』은 『眞傳』 및 『규범』과 더욱 친연성이 있다. 다만 후자가 다양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를 담고 있다면 『열녀전』은 주로 여성이 지켜야할 규범을 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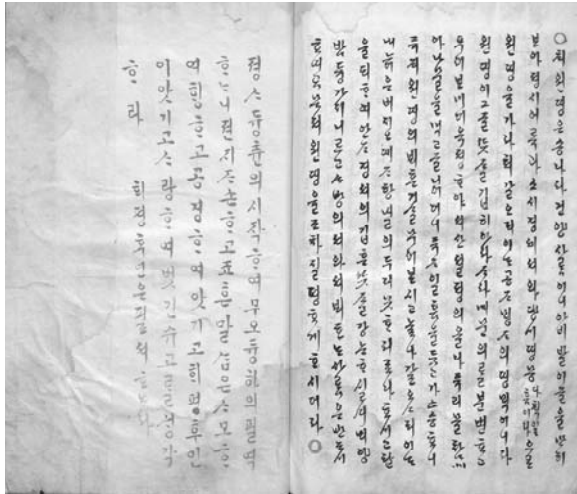
녀전』은 『眞傳』 및 『규범』과 달리 필사자가 여성으로 명확히 제시된 점에서 주목된다.

天권의 필사기 : 정스(丁巳) 초춘(初春)의 시작하여 무오(戊午) 동하(仲夏)의 필역하는니 대 # 뉴전하라(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칙을 귀하여 하는 것 아니라 말씀이 넷 조흔 말이기 히평 후인은 단문 줄필의 띄적어느니 즈손은 말씀을 보하 능히 흥혀염죽흔 일은 만의 일이라도 흥혀면 히포 벗긴 슈고가 앓갑지 아니리로다 히평후인은 필서호노라

人권의 필사기 : 정스 동춘(仲春)의 시작하여 무오 동하의 필역하는니 전지즈손하고 조흔 말씀은 스모하여 흥하고 공경하여 앓기고 히평후인이 앓기고 스랑하여 벗긴 슈고를 생각하라 히평후인은 필서호노라



<그림 1> 『열녀전』 天의 마지막 면과 필사기



<그림 2> 『열녀전』 人의 마지막 면과 필사기

두 필사기에 따르면 두 책의 필사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天 권은 정사 초춘에, 人 권은 정사 중춘에 필사를 시작하였는데 필사를 마친 것은 모두 무오 중하이다. 즉 두 책의 필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필사기에는 옛날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전하라, 자손들은 책의 말씀을 공경하고 잘 실천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또 두 필사기 모두 해평 후인이 필서(筆書)한다고 적었다. 필사자 해평 후인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같은 집안 자료인 『윤시즈기록』의 저자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열녀전』은 기증자 조택기의 문중인 들목 조씨 집안 소장이며 이 집안에는 여성이 자기 삶을 회고한 기록인 『윤시즈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윤시즈기록』에는 필사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이루어진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병진(丙辰) 추칠월(秋七月) 순망(旬望)의 구포 월방 후평의서 **희평 후인** 윤호
 구는 심지가십삼지녀의 비고화악이 타별허티 심등의 비한비원과 통탄을 일합하
 야 흥등의 흥 문치 철폐 되어 심전스후의 풀닐 길 업고 심전의도 원분비한을 고
 흘 곳지 없스민 천에 일과 만의 이를 스스로 기록하야 심전 보고 만일 완명이투

싱이후후거든 **자손을 뵈여 알게 하고** 또 무슨 일호 것부고 희행호 일 기록호엄
 즉호 일이 잇거든 또 기록호라 조희를 남기노라(『윤시즈기록』, 18a~18b면)

두 번째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정스(丁巳) 이월(二月) 초팔일(初八日)에만 돌연 삼일 접속디 못호고 일〃 계
 성을 응호여 즉 숙침호미 각식 심회 동호여 상송거려 쓰노라. 붓기를 당호면 무
 호호되 주리 잡노라(『윤시즈기록』, 22b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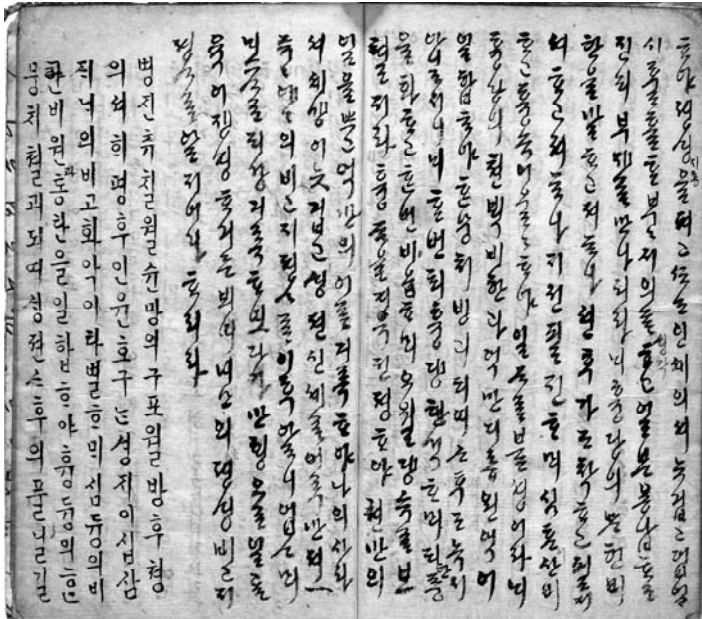
첫 번째 필사기는 ‘병진 추칠월 순망’에, 두 번째 필사기는 ‘정사 이월 초팔일’
 에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 치밀하게 고증한 바, 이 필사자는 저자 해평
 윤씨(1834~1882)이다.¹³⁾ 해평 윤씨의 생몰연대에 의거하면 병진은 1856년,
 정사는 1857년으로 각각 해평 윤씨가 23세, 24세 때이다. 즉 『윤시즈기록』은
 해평 윤씨가 23~24세 때 이루어진 것이고 필사 시기는 정확히 1856년 7월
 15일과 1857년 2월 8일이다.

한편 『윤시즈기록』의 필사기에 따르면 해평 윤씨는 자신을 “희평 후인”
 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또 “스스로 기록호야 싱전 보고 만일 완명이 투싱이
 후호거든 자손을 뵈여 알게 하고”라고 하여 이 글은 자신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며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요컨
 대 『윤시즈기록』의 필사기를 통해 해평 윤씨가 자신을 해평 후인이라 칭한
 다는 사실과, 23~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글을 쓰면서 집필 목적으로 자손
 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한 『열녀전』의 필사기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 해평
 후인이 기록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로 『윤시즈기록』의 해평 후인과 『열녀전』
 의 해평 후인을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두 자료의 글씨체가 다른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윤시즈기록』의 본문과 필사기가 함
 께 있는 부분으로, 본문의 글씨체가 앞서 제시했던 <그림 1, 2>나 <그림
 4>에 제시된 『열녀전』의 글씨체와 다름이 확인된다.

13) 조혜진, 앞의 논문, 220~22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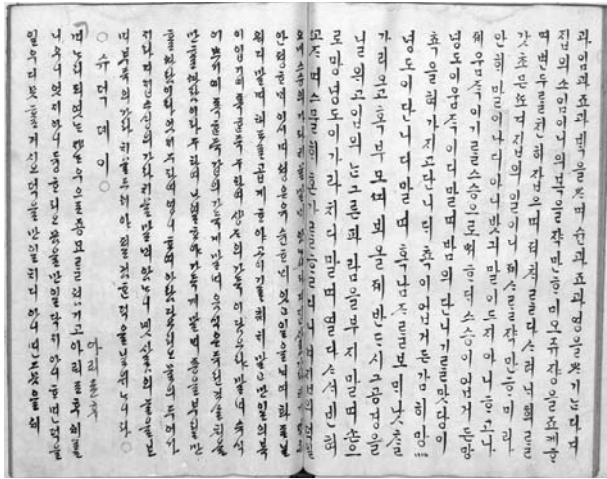
다만 『윤시즈기록』의 해평 후인이 『열녀전』의 필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열녀전』의 본문에는 확연히 다른 두 글씨체가 나타나므로, 두 사람에게 의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윤시즈기록』의 해평 후인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그림 3> 『윤시즈기록』 17b~18a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열녀전』에는 획을 흘려 쓰는 글씨체와 각지게 쓰는 글씨체가 함께 나온다. 여기서 각진 글씨체는 <그림 3>에 제시한 『윤시즈기록』의 ‘병진 추칠월 순망’으로 시작되는 필사기 글씨체와 흡사하다. 『윤시즈기록』의 선행 연구에서는 본문과 다른 필사기의 글씨체를 저자인 해평 윤씨의 것으로 보는데¹⁴⁾ 이에 의거하면 『열녀전』의 필사에 『윤시즈기록』의 저자인 해평 윤씨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14) 위의 논문, 222면.



<그림 4> 『열녀전』 20b~21a면

하지만 『열녀전』의 필사자가 『윤시즈기록』의 저자인 해평 윤씨와 다른 인물일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이를 테면 『윤시즈기록』의 해평 후인은 필사시기를 ‘정스 이월 초팔일’이라 표기하지만 『열녀전』의 해평 후인은 필사시기를 ‘정스 초춘’이라 표기하였다. 전자는 2월로 적시(摘示)한 반면 후자는 음력 1월을 의미하는 초춘이라 표기하였다. 전자를 음력 2월을 의미하는 중춘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자가 2월 8일로 날짜가 분명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날짜를 적시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열녀전』의 해평 후인이 『윤시즈기록』의 해평 후인과 다른 사람이기에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 것일 수 있다.

한편 『列女傳』은 필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필사본 규범서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天 권은 ‘방씨여교’, ‘녀형’, ‘내훈’, ‘여훈집’, ‘열녀전’, ‘女誠’ 등으로 구성된다. 人 권은 ‘열녀전’, ‘소학언해’, ‘오륜행실’ 형제·봉우편으로 구성된다. 두 책 중 필사자가 공력을 들인 자료는 天 권이다. 天 권은 구성된 장이 人 권에 비해 다양한데다 내용도 열녀전이라는 제목에 부합된다. 반면 人 권은 구성된 장도 적을 뿐 아니라 제목에 맞지 않게 형제와 친구 간의 윤리 규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에 天 권을 구성하는 각 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내용
① 방씨여교 10장	방시니교 데일장, 구교 데이장, 스부 데삼장, 스데장 데스, 교즈 데오장, 슈절 데눅장, 안분 데칠장, 경신 데팔장, 근검 데구장, 출하 데십장
② 녀형 5장	우데는 츠레로 첫장, 우데 이장, 우데 삼장, 우데 스장, 우데 오장(녀형 종)
③ 내훈 12장	총론, 스부모장, 봉계스장, 스부장, 화형데장, 동기장, 목족장, 더인장, 노복장, 거처장, 의복장, 음식장, 잡의장
④ 여훈집 12장	규훈 데일, 슈덕 데이, 슈명 데삼, 부부 데사, 효구고 데오, 경부 데눅, 익첩 데칠, 즈유 데팔, 업즈 데구, 교즈 데십, 신정 데십일, 절검 데십이
⑤ 열녀전	
⑥ 女誡 7장	비약, 부부, 경신, 부형, 곡종, 화숙미
⑦ 열녀전 '조세슈처던'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에 향유된 여성 윤리 규범서는 간행본과 필사본 형태로 나누어진다. 간행본 윤리 규범서가 최상층 여성에 한정된 향유물이라면 필사본 윤리 규범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필사본으로 규범서를 접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간행본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여 내용이 고정된 형태로 수용되었다면 필사본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필사자의 판단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져 수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간행본과는 다른 의미에서 필사본 규범서는 당시 여성이 지식과 교양을 향유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필사본 윤리 규범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⁵⁾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列女傳』은 한글 필사본 규범서를 논할 때 거론되어야 할 자료임이 분명하다.

2. 『대왕대비전 언교』

이 자료는 1책의 필사본이며 책 크기는 15×10cm이고 분량은 총 26장(전체 57면)으로 한 면당 8항 13자로 필사되었다.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책인 수진본(袖珍本)이다. 필사기가 없어 필사자 및 필사 년대 미상이다. 제목에 보이는 언교는 한글로 쓴 왕후의 교서(敎書)를 말한다. 즉

15) 이지영, 『조선시대 규훈서(閩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제2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참고.

대왕대비가 내린 한글 교서라는 뜻이다.

이 자료는 조선의 제24대 왕인 헌종의 죽음을 기점으로 대왕대비인 순원 왕후가 철종을 사왕(嗣王)으로 옹립하는 전교를 내리고 철종이 성군이 되기 위한 방법을 대신들과 논의하는 내용을 대화체 형식과 순 한글로 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1849년(헌종 15, 기유) 6월 초6일과 9일의 양 일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 우선 자료의 첫 부분은 ‘기유(己酉) 녹월(六月) 초육일(初六日)의 시원님대신 입시 〃 대왕드비던이 울으시며 곱으스디’로 시작된다. 시원임대신으로 영부사 조인영, 판부사 정원용, 판부사 권돈인, 판부사 박희수, 좌의정 김도희, 도승지 홍종응 등이 입시한 가운데 순원왕후가 헌종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한다. 이 때 헌종이 후사 없이 죽은 탓에 신하들이 순원왕후에게 사왕을 정하도록 주청(奏請)한다.

좌의정 김도희 왈,
 “종스디게가 일시 급흐오니 복원 급히 하교을 누리옵쇼셔.”
 대왕대비전이 엄억하시며 하교 왈,
 “중스의 부탁이 시급하다”
 하시며 그 아리 말씀은 우름과 상반하시며 점미하고 가느러 즈시 듯좁디 못
 하니 덩원용이 왈
 “더계 급흔디라 관억하시고 분명이 하교흐스 신등이 즈시 듯좁기를 바라노이
 다. 이만 크고 뉘흔 일이 업스오이다. 다만 말씀으로 가로치심만 밋드지 못흐옵
 게스오니 문즈로써 누리쇼셔” (『대왕대비전 언교』 4~5면)

인용 대목에 따르면, 신하들이 종사 대계가 급하다고 거듭 주청을 드리자 대왕대비가 울음을 참으며 하교를 내린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울음과 섞이고 말소리가 가늘어 자세히 들리지 않자 판부사 정원용이 말씀으로만 하교를 내리시지 말고 문자로 써서 내려달라고 주청한다. 그리하여 순원왕후가 영조의 5대손이면서 강화에 유배되어 있는 전계군 광의 제3자 원범을 사왕으로 옹립한다는 문구가 적힌 문서를 내린다. 이어서 신하들의 주청에 따라 순원왕후가 수렴정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강화에 있는 사왕을 서울로 모셔 오기 위한 봉영(奉迎) 의례 절차를 정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6일에 있었던

대화 기록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9일의 기록인데 이미 서울로 모셔온 사왕에게 관례 및 등극 의례가 행해진 다음의 상황을 다룬다. 후술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다룬 자료인 『당저등극시연설(當寧登極時筵說)』(이하 ‘연설’로 약칭)에는 사왕의 관례 및 등극 의례 과정이 상술되지만, 『대왕대비전 언교』(이하 ‘언교’로 약칭)에는 등극 의례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고 다만 관례에 관한 내용이 소략하게 언급되며 “금상 관명 즈는 길 도즈 올을 승즈”라고 관명(冠名)을 적어 관례가 행해졌다는 표시만 한다.

관명 표시에 이어 ‘초구일(初九日) 등극하신 후 입시 씨의 영부스 도16) 같으더, “성인이 오백년 종스를 이으샤 다시 반턱갓치 평안하시물 일으키니 태모 성덕이 실노 종스의 밋치 계시니 신 등이 일만 번 경헝하기를 이기지 못흐옵는 이다.”로 시작된다. 이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은 순원왕후와 대신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미 보위에 오른 철종도 함께 한다. 그래서 저와 같이 대신들이 철종이 보위에 오른 사실을 축하한다. 그 다음 순원왕후와 대신들이 철종이 성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가 이어지며 이 대화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 대신들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순원왕후가 이에 동조하여 이를 철종에게 권고하면서 이후 왕후와 대신들이 왕의 강학(講學)을 위해 서로 애쓰자는 것이 골자이다. 끝으로 대왕대비가 내린 언교를 진서(眞書)로 번역하여 왕이 갖도록 하고 또 조보에도 배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요컨대 『대왕대비전 언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순원왕후가 사왕을 옹립하는 전교를 내림, ②사왕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봉영 의례 절차를 정함, ③ 보위에 오른 철종이 성군이 되는 방법으로 강학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순원왕후의 주도로 철종이 등극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는 『언교』 외에 『조선왕조실록』 중 『헌종실록』과 『철종실록』, 『연설』, 『경산일록(經山日錄)』, 『기유기스』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¹⁷⁾

16) 조원영의 직만 부른 것이다. 이 자료는 서두에 이름을 완전히 제시한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모두 성만 기록한다.

17) 洪在休, 『當寧登極時筵說』, 『國文學研究』 제6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2; 全聖鐸, 『己酉記事類 記錄文의 一研究』, 『論文集』 제27집, 春川教育大學, 1987; 김미선, 『한글산문

『연설』은 이 자료를 처음 학계에 소개한 홍재휴의 개인소장본으로, 논자는 해당 논문에 이 자료의 원문 전체를 수록하였다. “기유 팔월 일 계동 월방이서 벗겨시나”라는 필사기가 있어 필사 시기는 기유년 8월로 밝혀졌는데 필사자는 알 수 없다. 『경산일록』은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1802년부터 1873년까지 약 71년에 걸쳐 쓴 일기이다. 정원용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썼으며, 특히 현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던 과정에 대한 일기는 실록보다 몇 배나 상세하다고 평가된다.¹⁸⁾ 게다가 정원용은 순원왕후의 명을 받아 강화도로 신왕(新王)을 모시러 간 봉영 사신이었으며 『경산일록』은 철종 사후에 편찬된 실록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기유기스』는 1849년 6월 6일 철종즉위 과정을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는 한글 산문이다. 창작시기는 1850년(철종 1) 4월 상순으로, 작자는 강화도에 봉영사신으로 갔던 윤정선이라고 논의된 바 있다.¹⁹⁾ 이 자료들은 유사한 사건을 다루지만 저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해당 사건과 당시 정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데, 『언교』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1차적인 가치를 지닌다.

특히 공식 기록인 실록에 비해 『연설』, 『경산일록』, 『기유기스』는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그간 이 분야에서 중점적인 연구대상이 되어 왔는데, 『언교』 역시 실록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성격을 지닌 자료들과 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언교』는 이 자료들보다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담은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 이면의 상황을 담고 있는 한글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설』, 『경산일록』, 『기유기스』, 『언교』 중 가장 성격이 다른 자료는 『기유기스』이다. 이 자료는 철종 즉위 과정을 배경으로 하되, 강화도로 새 왕을 모시러 간 봉영사신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이다.²⁰⁾ 그 결과 『연설』, 『경산일록』, 『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왕대비와 대신들이 철종

『당저등극서연설의 성립과정 재론: 『경산일록(經山日錄)』소재 철종등극 과정 기록과 『기유기스』와의 대비를 통해서, 『어문논집』 제62집, 민족어문학회, 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8) 허경진, 『연세대학교 소장 고서의 문헌적 가치: 13종 저술을 통해 본 관인 정원용의 기록태도』, 『동방학지』 제146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9, 108~118면.

19) 최강현, 『<기유기스> 작자에 대하여』, 『홍익』 제21집, 홍익대학교, 1980, 98~99면.

20) 그 여정은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으며 여정 중 느낀 점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 그리고 6, 7, 8, 9일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의 강학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없다.

『연설』, 『경산일록』, 『언교』 중 『경산일록』은 개인의 일기로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철종의 등극 내용이 담긴 자료라면 『연설』과 『언교』는 애초에 철종의 등극 내용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료이다. 그렇다면 순원 왕후의 주도로 철종이 등극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는 『연설』과 『언교』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간 관련 자료에 대한 논의에서 『연설』이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연설』은 전술한 바 있듯이, 기유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철종이 즉위한 기유년 6월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상황을 매우 이른 시기에 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자료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해명하면 각 자료의 가치와 의미가 한층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연설』과 『언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 대왕대비던 왈

“여기 글자로 쓴거시 잇노라.”

흐시고 인하여 럼니로서 흐 조히를 니여주시고 우왈

“돌너본 후 진서로 번역하라.”

니시 밧즈와 도스디 흥종응을 주니 종옹이 꾸러 밧즈와 시원임대신의게 던흔 디 시원임대신이 꾸러 밧즈와 돌너 보오니 하교 왈

“종샤 부탁이 시급하고 영종 혈막이 금상과 다 밧 강화 거흔는 **아모니** 이 곳 **아모의 제 삼즈라** 일노뻬 종샤 브탁을 덩하라.”

덩원용 왈,

“년세가 즉금 멧치시니잇고.”

디왕디비던 왈,

“십구셰시라.”(『연설』 145면)²¹⁾

㉡ 대왕대비전이 하교 왈,

“여기 언문으로 써 둔 거시 잇다.”

흐시고 아히하여 발안으로서 종의 니여 주시며 갈으스디

“이 글을 돌려보고 딴서로 번역하라.”

21) 『연설』의 원문은 흥계휴, 앞의 논문에서 수록된 자료의 원문에서 입력한 것이다. 면수는 논문에서 원문 자료가 수록된 페이지를 따른 것이다.

하시니 시원님 더신이 돌려본 즉 원즈 범즈 엽히 쓰시기를 광즈 제 삼즈(강조는 인용자)라 하여시니 권돈인이 주왈

“광즈 변이 모호호와 분변키 어렵다.”

알윈더 대왕대비던 언교을 디서로 번역호은 후의 닐그더

‘중스의 부탁이 시급한지라. 영묘조 혈손이 금상과 다못 강화의 건훈 원즈 범즈 분이라. 일노 뼈 중스의 부탁을 정호노라.’

원즈 범즈 엽히 광즈 제 삼즈라 써시니 닐기를 다호미 덩원용이 알외디,

“년세가 언마나 하시니잇고.”

대왕대비던 왈,

“십구세니라.”

하시니

(『대왕대비전 언교』 5~8면)

㉠은 『연설』 ㉡은 『언교』 중 순원왕후가 사왕을 옹립하는 전교를 내리는 부분으로 자료의 핵심 구성 부분 중 하나이다. ㉠에서는 철종을 ‘아모니’, 철종의 아버지와 철종을 ‘아모의 제 삼즈’라고 칭하지만 ㉡에서는 ‘원즈 범즈’, ‘광즈 제 삼즈’하는 식으로 철종의 이름과 철종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철종의 실명은 이원범(李元範)이고 철종 아버지의 이름은 이광(李曠)이다. 즉 『언교』는 철종의 이름 ‘원범’과 철종 아버지의 이름 ‘광’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공경하여 부르는 것을 꺼려하였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단한 결례로 생각하였다. 그런 문화 속에서 더군다나 임금은 당대 최고 존엄이므로, 임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연설』에서는 그러한 상식이 잘 지켜진 반면 『언교』에서는 임금과 임금 아버지의 실명이 노출된다. 이런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언교』의 이러한 특징은 이 자료가 철종이 임금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기록임을 암시한다고 판단된다.²²⁾ 『언교』가 담고 있는 정황은 헌종이 죽고 후사가 없어 사왕을 정하기 위해 순원왕후와 대신들이 처음 모인 자리이다. 즉 대신들은 아직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지 모른다. 오직 결정권자인 순원왕후가

22)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옛 한글문헌세미나에서 임치균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사왕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함으로써 비로소 대신들도 새 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주어 보면 『연설』은 철종이 이미 임금으로 등극하고 난 뒤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이미 왕이 된 자의 이름과 왕의 아버지 이름을 합부로 부를 수 없어 아무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전술한 바, 철종 등극으로부터 2개월 뒤에 필사되었다는 『연설』의 필사기로도 증명된다.



<그림 5> 『연교』 중 철종 등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6~7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연교』는 대왕대비가 처음에 내린 교서를 담은 원본을 필사할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즉 원본에 근접한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전술하였듯이 『연설』과 『연교』의 핵심 구성 부분 중 하나가 대왕대비와 대신들이 철종의 강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두 자료는 차이를 보인다.

『연설』에서는 철종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사략』, 『통감』, 『소학』으로 나온다.

명원용 왈,

“신이 봉녕하고 올라올 썬 체면의 관계호와 알외디 못흐녇습거니와 전의 무 손 글을 넘으시니잇가.”

상왕,

“스략 훈 권, 통감 두 권, 소학 두 권 밧 넓은 배 업노라.”

도인영 왓,

“비록 소학 두권이라도 그 법을 행히시면 치국히시기의 족히시니이다.”

(『연설』 151면)

『연설』의 해당 대목에 따르면, 철종은 『사략』 한 권, 『통감』 두 권, 『소학』 두 권을 읽었다. 반면 『언교』에서는 철종이 『통감』과 『소학』만 공부했다고 나온다.

판부스 덩이 같오더 (…중략…) 또 같오더

“신이 두 날이나 띄시고 디니오와 비록 전일의 무슨 글을 넓은신고 알고 시부 오나 노츠의 감히 엇즈와 보지 못흐온지라. 지금 가의셔 말흐오니 업디여 아지 못게라. 글 넓은시기를 만코 적은 거시 엇더흐온잇가.”

(…중략…)

상이 곁으스디

“일즉이 통감 두 권과 소학 훈 두 권을 넓은 씨름이오, 근리의는 넓은 비 업노라.”

영부스 도가 같오더

“글을 넓그셔 광과흐옵시니 진실노 성인 짓는 터 갓스오니 만일 임의 넓은신 두 어권 안의 상히 궁구흐옵셔 힘빠 행히샤 겨르지 아니신 즉 예로부터 성현의 일일 천말과 일만 말이 엇지 쇼학 훈 글 밧긔 잇스리오. (…중략…)

상이 곁으스디

“그러나 아소 씨의 범홀이 넓어시니 지금은 암 〓 하야 능히 기억홀 슈 업노라.”

대왕대비던 곁으스디

“만일 글 넓기를 시작히시면 맛당이 무슨 글부터 시죽하면 죠흐리오.”

판부스 권이 곁오더

“경서가 좃스오이다.”

판부스 덩이 곁오더

“쥬상 년세가 오히려 춘년의 계시고 글 넓은신 거시 또 만치 아니시니 시죽하여 넓은시면 사략부터 하야 문리를 츠르신 후의 경서를 이어 넓은시면 좃케습스이다.”

(『언교』 43~55면)

『언교』의 해당 대목에서 철종은 『통감』 두 권과 『소학』 두 권을 읽었다고 한다. 이를 들은 대왕대비가 대신들에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어떤

책부터 보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대신들이 『사략』부터 시작해서 문리가 트인 다음 경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한다. 『언교』의 맥락에서 『사략』은 철종이 성군이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책으로 나온다. 세 종류의 책이 거론되는 『연설』에 견주어보면, 이 대목은 필사자의 잘못으로 『사략』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략』이 다른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으므로 두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왕대비와 대신들이 왕의 자질이 강화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다. 대신들이 보위에 오른 왕에게 그간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물어본 다음, 왕이 그간 공부한 것이 없다고 하자 강화 날짜를 서두르자고 논의하는 부분인 것이다. 철종이 읽은 책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부각될수록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 권의 책일지라도 『사략』의 유무는 중요하다. 따라서 공부한 책 가운데 『사략』이 빠진 『언교』가 그것을 포함시킨 『연설』에 비해 철종의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이 부각된다. 이런 점을 전술한 임금의 이름 거론 유무와 연결시켜 보면, 『언교』에서 왕의 자질이 부족한 점이 부각되었던 것이 이후에 『연설』에서는 『사략』을 추가하여 부족한 면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언교』와 『연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도 대왕대비가 내린 교서를 거의 그대로 담은 『언교』가 먼저 존재했을 것이다. 이후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대왕대비가 철종을 옹립한 과정과 철종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료로 『언교』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완한 『연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던 『연설』의 필사기를 다시 살펴보면, 필사자가 자신은 ‘문필이 불능 노둔하여’, ‘일생에 붓대를 잡기 싫지만’, ‘친교로 마지 못’하여 필사하며, ‘한가지 못하여 마음에도 없이 쓰니’ ‘타문가 명필 문당 부인들의 고안 명안을 흐릴까 ‘수괴 막심’하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필사자는 사대부가 여인으로 추정된다. 필사기를 통해 『연설』이 사대부가 여인들 사이에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언교』는 원본 계열, 『연설』은 일반 사대부가 여성들이 접해도 좋을 만큼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계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精所』

이 자료는 1책의 필사본이고 책 크기는 34×21cm, 매면 9행 20자 내외로 필사되었으며 총 28장(전체 57면)이다. 표제가 ‘『精所』上’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은 순 한글이며 다음과 같은 경들을 필사하고 있다.

차례 및 구성

① 던지팔양신주경(총24면)
② 틱을동선경(4면)
③ 불설조왕경(4면)
④ 불설환희조왕경(2면)
⑤ 불설삼지경(5면)
⑥ 시루아니늑논늑늑경(1면)
⑦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39가지 진언(9면)
⑧ 불설여라장경 실상 장구(1면)
⑨ 비로자나총귀 진언(1면)
⑩ 삼지드느희(2면)
⑪ 이스홀적법(3면)
⑫ 관지쇼멸호느법(2면)
⑬ 학질떼테느진언(1면)

총 13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⑦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39가지 진언을 필사한 끝에 ‘이왕 먼저 벗겨보던 것손 이 진언 언히요, 이것손 늑느 진언 간신이 어덧기 벗겨보닌다’라는 필사기가 있다.²³⁾ 여기서 ‘먼저 베껴 보낸 것은 진언 언해’이고 ‘이 책은 읽는 진언’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로 보건대 이 책은 진언을 모아놓은 진언집이다.

필사기의 ‘읽는 진언’이라는 표현은 이 책이 진언의 독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이 책은 진언의 뜻에 대한 설명 없이 음만 필사하고 있다. 한편 ‘진언 언해’라는 표현은 먼저 베껴 보낸 책이 진언의 뜻을 한글로 풀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진언집과 달리 진언의 뜻을 한글로 설명한 책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필사기가 적힌 부분이

23) ⑫관지쇼멸호느법’을 필사하는 중에 ‘막필노 실업시 쓰고 보니 우습다’라는 필사기가 있다.

⑦‘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39가지 진언 뒤이므로, 필사기의 내용이 과연 이 책에 담긴 모든 진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진언에만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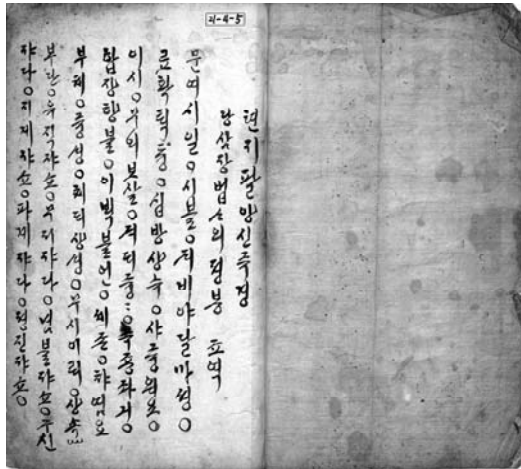
책에 실린 진언들은 독송하면 안택(安宅), 구명(救命), 기복(祈福), 양재(禳災), 치병(治病) 등의 효력을 지닌 것으로 나온다. ②티을동선경 제목 아래 ‘이 경은 가택이 안온하다는 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 경을 암송하면 집안이 편안해지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③불설조왕경, ④불설환희조왕경의 경우 ‘우히 쓰인 조왕경 먼저 넓고 이 경을 또 넓으면 조왕신장들이 다 환희하여 춤을 추어 즐기면 집안이 더길디경(大吉大慶)한 경, 덩월 상원일의 넓으면 조타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 불설조왕경을 먼저 읽고 불설환희조왕경을 읽으면 조왕신장들이 즐거워하여 집안이 잘되는 효능이 있다는 뜻이다. 또 정월 상원일에 읽으면 좋다는 읽는 날짜 혹은 방법이 나와 있다. ⑤불설삼지경 제목 아래에는 ‘삼지드는 스롭 잇거든 그 스롭 싱월을 일궈고 일삭의 세 번식 외오면 삼년 너 티평하나라’고 필사되어 있다. 三災는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3가지 재난을 의미하는데, 삼재가 든 사람이 생년월일을 말하고 한 달에 세 번씩 이 경을 암송하면 3년 내로 태평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⑨비로자나충귀 진언의 경우 ‘이 진언은 아모 곳더라도 극히 조흔 진언’이라고 되어 있다. 다른 진언이 특정한 상황에 효력을 보인다면 이 진언은 모든 상황에서 효력을 보인다는 뜻이다.

그 외에 ⑥시루아니닉는디넓는경 ⑩삼지드는희, ⑪이스홀적법, ⑫관지쇼멸하느법, ⑬학질찌테는진언 등 시루가 익지 않을 때, 삼재가 들 때, 이사할 때, 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인 官災가 들 때, 학질을 떼어낼 때 읽는 진언이 있다.

또 13경 중 ‘불설~’로 시작되는 경이 네 개나 있다. ③불설조왕경 ④불설환희조왕경 ⑤불설삼지경 ⑧불설여러장경실상 장구가 그것이다. 불설(佛說)로 시작되는 경들은 위경(僞經)으로 분류되는데, 위경은 인도의 불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인도 이외의 나라에서 부처의 말씀에 가탁하여 만들어진 거짓 경전을 말한다. 위경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중국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화되면서 출현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위경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²⁴⁾ 위경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각종 진언들을 모아 놓은 진언집류와 더불어

『천지팔양신주경』이 대표적이다. 위경류 불서(佛書) 중 조선시대에 많이 간행된 경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설장수멸죄호저동자다라니경』, 『불설천지팔양신주경』순이다.²⁵⁾

『精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정도 ①턴지팔양신주경 이다. 전체 총 57면 가운데 24면을 차지한다. 간행본 『천지팔양신주경』의 경우 한문 원문에 한글로 음을 달고 대체로 네 글자를 한 구절로 표점을 해놓고 있어 처음부터 독경(讀經)을 위한 체제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에 비해 보면 『정소』 역시 원문을 대부분 네 글자씩 끊어 ○로 표점을 하였다. 하지만 원문이 순 한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6> 1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경향은 크게 보면 조선 전기에는 불교 사상의 핵심을 담은 심오한 불서가 간행되지만 후기로 가면 다라니경, 진언집, 위경 위주로

24)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0면.

25) 남희숙, 위의 논문, 122면.

26) 김성순, 『도류승(道流僧)의 정체성과 독경활동: 무경(巫經)으로 전용되는 경전들』,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6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5, 174면; 김남경,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本大藏經)의 서지와 한자음에 대하여』, 『민족문화논총』 제5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4~6면.

바뀌며 이러한 불서들은 대부분 언해되어 간행된다.²⁷⁾ 여기서의 언해 형식은 한문 원문에 한글 독음을 병기하는 것이다. 진언집의 다양한 간행과 함께 한글 독음의 표기는 조선 후기에 진언이 대중적으로 유행했던 사정을 보여준다. 아마도 『精所』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출현하였을 것이다. 다만 간행본 진언집의 형식과 달리, 『정소』는 순 한글로만 이루어진 한글본이자 필사본 진언집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진언집의 대중화 정도를 한층 잘 보여준다. 양반 가문에서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한글 자료의 필사는 여성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문 원문과 한글 음역을 형식으로 한 간행본의 대대적인 유포 아래 마침내 양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한글 진언집을 필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순수 한글 진언집의 출현에 비해 보면 간행본 진언집의 형식은 한문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언집의 성격을 띤 불서 연구는 이러한 한문으로 된 간행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글로 된 필사본 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문으로 된 간행본 연구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화성 지역 양반 가문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 진언집의 존재는 조선 후기에 진언집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던 사정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한글 필사본 진언집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IV.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의 의의: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 19종을 소개하고 자료의 가치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전적 19종은 화성 지역에 세거한 양반가에서 기증된 것으로, 형태사향을 살펴본 결과 간행본이 3종, 필사본이 16종이었다. 또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학 작품이 5종이라면 나머지 14종은 대개 교육적 또는 실용적 성격을

27) 남희숙, 『朝鮮時代 陀羅尼經·眞言集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大 奎章閣 所藏本の 분석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제5집, 회당학회, 2000, 68~69면.

던 것이었다. 14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대 이념과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로, 7종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7종 중 3종은 진언 또는 점복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진언류 전적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용서로 파악된다.

이러한 특징을 기증한 가문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화성 지역 양반가는 당대 윤리와 이념 교육을 위한 한글 전적을 주로 향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네 가문 중 세 가문에서 이러한 성격의 한글 자료를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종만 기증한 집안의 경우 그 자료는 『언문상례』라는 윤리 교육서이다. 가장 많은 자료를 기증한 가문에서 8종을 기증하였는데 5종이 그러한 성격의 자료이다.

또 많은 자료를 기증한 조택기의 들목 조씨 가문과 정우식의 초계 정씨 가문에 한정하여 한글 전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들목 조씨 가문에서 기증한 한글 자료는 8종이다. 이 자료들은 대개 교육적 성격을 띤다. 『眞傳: 계고언행록』, 『己巳記事: 문널공기소』, 『閨範』, 『列女傳: 널녀던』, 『대왕대비전 언교』 등 5종은 윤리와 이념 교육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로 미루어 들목 조씨 가문은 윤리와 이념 교육을 위한 한글 전적을 주로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이 이 집안에 전혀 전승되지 않는 점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6종을 기증한 초계 정씨 가문의 경우 4종이 문학 작품이다. 이 가문의 기증 자료에는 윤리 교육서가 한 종도 없다. 즉 두 양반 가문은 각각 규범서를 주로 향유하거나 문학 작품을 주로 향유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두 가문의 경우를 통해 화성 지역 양반 가문에서 향유하는 한글 전적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인다기보다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문에서 공통적으로 향유한 한글 전적이 진언이나 점복에 관한 책이라는 점은 주목을 끈다. 즉 두 양반 가문은 모두 진언류 전적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들목 조씨 집안에서 진언류의 책을 향유한 점에서 그러하다. 이 집안은 윤리 이념 교육을 위한 책을 주로 향유하였는데, 진언류의 책은 교육을 위한 책과 성격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대 윤리와 이념을 담은 자료가 보수적인 지향성을 보여준다면, 진언류의 자료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지향성을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로 문학 작품을 향유한 초계 정씨

문중에서 진언류의 자료를 향유한 것은 후자의 맥락에서 파악된다.

반면 들목 조씨 집안에서 보여준 진언류 전적의 향유는 다른 맥락에서 파악된다. 진언류 전적은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 윤리 이념의 교육을 위한 전적 역시 실용적 성격의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들목 조씨 집안은 주로 실용서를 향유했다. 물론 자료가 전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집안이 문학 작품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승 자료에 국한하여 본다면 들목 조씨 집안은 문학 작품보다 실용서의 성격을 띤 책을 향유했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보고는 전적 19종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3종의 자료를 장을 달리하여 다루었다. 『列女傳』은 여성 필사자의 존재를 고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필사자 해평 후인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소설 및 한글 문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해평 윤씨 집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列女傳』은 그간 간과되어 온 한글 필사본 규범서를 연구할 때 거론되어야 할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대왕대비전 언교』는 관련 계통 자료들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보면 그간 이 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당저등 극시연설』은 원본에 수정을 가한 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대왕대비전 언교』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精所』는 순 한글로 이루어진 필사본 진언집으로, 양반가 여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한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 연구된 진언집은 한문을 위주로 엮어진 간본 형태였다. 이에 비해 화성 지역 양반가에서 향유된 한글 필사본 진언집의 존재는 조선 후기 진언의 대중화 양상을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한글 소설에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진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列女傳』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본.
『대왕대비전 언교』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본.
『精所』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본.
『윤시즈기록』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본.
『언문상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古朝29-145, 古5213-108-219).
『兎의 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3634-2-20(3), 3634-2-20(3)).
『當宁登極時筵說』 洪在傑 소장본.

2. 단행본

- 서신혜 해제, 『박태보전』, 문학동네, 2012.
오영섭, 김자운 공저, 『구국의 마지막 제언: 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이근호 외,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1995.
최홍규 외, 『취석실 우하영의 삶과 학문: 다시여는 《천일록千一錄》과 그 시대』, 화성시, 2014.
화성시 편,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3. 논문

- 김 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11~71면.
김남경, 『불설광본대세경(佛說廣大歲經)의 서지와 한자음에 대하여』, 『민족문화논총』 제5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4~6면.
김미선, 『한글산문 「당저등극시연설」의 성립과정 재론: 『경산일록(經山日錄)』소재 칠종등극 과정 기록과 「괴유기사」와의 대비를 통해서』, 『어문논집』 제62집, 민족어문학회 2010, 33~60면.
김선우, 『조선후기 『척사윤음』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학위논문, 2018.
김성순, 『도류승(道流僧)의 정체성과 독경활동: 무경(巫經)으로 전용되는 경전들』,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6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5, 151~179면.

-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남희숙, 『朝鮮時代 陀羅尼經·眞言集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大 奎章閣 所藏 本の 분석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제5집, 회당학회, 2000, 68~69면.
- 박종천, 『「척사운음」연구』, 『宗敎學研究』 제18집,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9, 125~150면.
- 배요한, 『정하상의 「상재상서」에 관한 연구: 현종대 「척사운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4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4, 211~239면.
- 신성환, 『근대계몽기 여성의 호명과 교육, 그리고 『片片奇談警世歌』: <녀자교육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71집, 민족어문학회, 2014, 37~62면.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지영, 『조선시대 규훈서(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제2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81~113면.
- 이황진, 『「초당문답가」의 유형별 특성 연구』, 『國文學論集』 제16집,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267~287면.
- _____, 『초당문답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全聖鐸, 『己酉記事類 記錄文의 一研究』, 『論文集』 제27집, 春川敎育大學, 1987, 19~40면.
- 조혜진, 『해평윤씨 부인의 『윤시즈기록』 연구』, 『국문학연구』 제32집, 국문학회, 2015, 219~245면.
- 최강현, 『<규유괴스> 작자에 대하여』, 『홍익』 제21집, 홍익대학교, 1980, 98~99면.
- 하동호, 『博文書館의 出版書誌攷』, 『出版學研究』, 한국출판학회, 1971, 35~61면.
- 허경진, 『연세대학교 소장 고서의 문헌적 가치: 13종 저술을 통해 본 관인 정원용의 기록태도』, 『동방학지』 제146집, 연세대학학연구원, 2009, 89~121면.
- 洪在炘, 『當宁登極時筵說』, 『國文學研究』 제6집,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2, 123~153면.

A study of Hangeul jeonjeok(典籍)
in the Hwaseong Municipal Folk Museum

Chae, Yun-mi

This paper is study of Hangeul jeonjeok(典籍) in the Hwaseong Municipal Folk Museum. This Hangeul jeonjeok(典籍) donated from four noble families who liv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Hwaseong. This paper examined the form and content of these materials. As a result, Noble families in Hwaseong mainly enjoyed books that contained ethical content, and valued the book with the contents of the magic formula.

Next, this article discussed more important material separately. *Yeolhnyeojeon*(『列女傳』) can help confirm the existence of female transcriber and study the written ethics book. *Daeuungdaebijoen Unkyo*(『대왕대비전 언교』) is worth the original. *Jeongsu*(『精所』) is the magic book of the Hangeul manuscript. This material is useful in identifying the popularization of magic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Hangeul jeonjeok(典籍), *Yeolhnyeojeon*(『列女傳』), *Daeuungdaebijoen Unkyo*(『대왕대비전 언교』), *Jeongsu*(『精所』)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
